

GCC 은행산업의 현황과 과제

이현정·국별조사실 조사역

I. 머리말	III. GCC 경제와 은행산업 전망
II. GCC 은행산업의 현황	IV. GCC 은행산업의 위험요소와 과제

<요 약>

고유가로 인한 경제 호황에 힘입어 GCC 지역의 은행산업은 급속히 성장하였고, 은행의 자산 규모와 순이익은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풍부한 오일 머니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붐의 영향으로 GCC 은행산업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였으나,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와 수익성 악화를 경험하였다.

금융위기 발생 후 GCC 6개국 정부가 자국 은행 앞 긴급 유동성 지원, 금리 인하 등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한 결과, GCC 지역 경제와 은행산업은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GCC 은행산업은 자산 증가세가 유지되고 충당금 적립금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나, 신용경색 및 자산 가격 하락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상존해 있다. 또한 GCC 지역의 경제 회복 여부와 GCC 경제 및 은행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국제 유가의 움직임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남아 있다.

불확실성과 위험이 상존해 있는 경제환경 하에서 GCC 은행산업이 국제화, 전문화되어 장기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은행구조 개선 및 규모 확대, 금융시장의 다양성 확보, 금융 전문인력 및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 민간은행 활성화 등의 금융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 머리말

최근 수년간 고유가와 경제 호황에 힘입어 걸프협력회의¹⁾(Gulf Cooperation Council: GCC) 국가들은 경제 규모가 2004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하여 2009년에 1조 400억 달러를 기록하며 큰 폭의 경제 성장을 시현하였다. GCC 지역은 인프라 개발 확대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역내 무역장벽 철폐,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증하였고, 고유가에 따라 대규모 오일 머니가 유입되어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다. 오일 머니와 FDI 유입 등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GCC 지역의 은행산업도 급속도로 성장하여, 2009년의 은행산업 총자산 규모는 9,392억 달러를 기록하며 2004년의 3,477억 달러에 비해 약 3배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이후 촉발된 금융위기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가격이 급락하였고, 신용경색 및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급격한 침체를 경험하였다. GCC 은행산업은 풍부한 오일 머니의 영향으로 세계 금융위기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으나, 유가 하락, 증시 폭락 및 부실 자산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2007년에 197억에 달했던 순이익은 2008년 4분기부터 집중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에는 전년 대비 16.5% 감소한 165억 달러에 그쳤다. 2009년에도 순이익이 전년 대비 8.4% 감소한 151억 달러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금융위기 발생 후 각국 정부는 전세계로 급속히 퍼지는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조 하에 각종 경기부양 조치를 취하였다. GCC 6개국 정부도 자국 은행 앞 긴급 유동성 지원, 금리 인하 등 대응조치를 취한 결과, 이 지역의 경제와 은행산업은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CGG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5.2%로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은행산업 역시 총당금 적립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0년과 2011년 순이익이 각각 172억 달러와 199억 달러를 기록하여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신용경색과 자산가격 회복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상존해 있으며, 이 지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유가 동향도 GCC 은행산업에 위험 요소로 남아 있다. 은행산업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호황과 금융위기를 겪으며 변화된 GCC 은행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은행산업이 장기적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1) 걸프만 연안의 6개 산유국(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이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에서 협력하여 종합적인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1981년 5월에 설립한 기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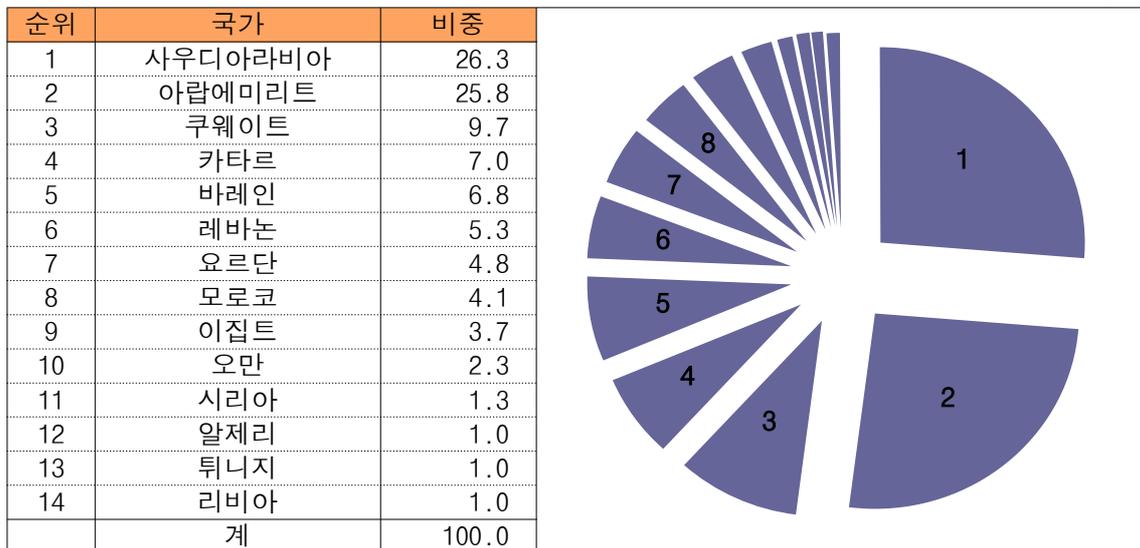
II. GCC 은행산업의 현황

1. GCC 은행산업 규모

국제금융전문지인 뱅커(The Banker)가 2009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발표한 '2010년 세계 1000대 은행'에는 중동 지역의 90개 은행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 GCC 지역 은행은 총 58개로 중동 은행의 64.4%를 차지하고 있다. 이 58개 GCC 은행들은 전세계 은행 기본자본²⁾의 3.58%, 총자산의 1.91%를 구성하고 있다.³⁾

〈표 1〉 중동 지역의 국가별 기본자본 현황

단위: %



자료: The Banker.

중동 지역 은행의 기본자본은 2009년 말 기준 총 1,382억 달러인데, 사우디아라비아(26.3%)와 아랍에미리트(25.8%)를 포함한 GCC 6개국의 은행이 이 중 80.4%를 차지하였다. 2009년을 기준으로 중동 지역의 기본자본증가율 상위 10개 은행 중에서 6개의 아랍에미리트 은행을 포함하여 총 8개 은행이 GCC 국가의 은행으로 나타나는 등 GCC 국가의 은행 산업은 중동 지역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국제결제은행이 규정한 '자기자본'의 핵심이 되는 자본임. 주주에 의해서 조성되고, 상환불능, 만기불확정, 확정이자 지급 배제의 요건을 갖춘 자본이어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연결자회사의 외부주주지분, 미교부주식배당금,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등이 이에 해당됨.

3) '2010년 세계 1000대 은행'에 포함된 은행들의 기본자본 합계액은 2009년 말 기준 4조 9,2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총자산 합계액은 95조 5,3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0.9% 감소하였음.

〈표 2〉 중동지역 기본자본상승률 상위 10개 은행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은행	국가	기본자본	증가율
1	Al Salam Bank	바레인	478	66.3
2	BankMed	레바논	686	44.2
3	Rakbank	아랍에미리트	564	43.5
4	National Bank of Abu Dhabi	아랍에미리트	5,795	42.0
5	Union National Bank	아랍에미리트	2,831	39.9
6	First Gulf Bank	아랍에미리트	6,063	38.1
7	Emirates NBD	아랍에미리트	7,257	30.8
8	Ahli Bank	카타르	396	28.0
9	Fransabank	레바논	718	23.6
10	Abu Dhabi Commercial Bank	아랍에미리트	4,656	23.3

자료: The Banker.

2. GCC 은행산업 현황

〈표 3〉 GCC 국가별 은행⁴⁾

국가	은행	
사우디아라비아 (12)	Riyad Bank, Bank Al-Jazira, The Saudi Investment Bank, Saudi Hollandi Bank, Banque Saudi Fransi, The Saudi British Bank, Arab National Bank, Samba Financial Group, Al-Rajhi Banking & Investment Group, Al-Bilad Bank, Al-Inma Bank, National Commercial Bank, National Bank of Kuwait, Gulf Bank, Commercial Bank	
쿠웨이트 (9)	National Bank of Kuwait, Gulf Bank, Commercial Bank of Kuwait, Al Ahli Bank of Kuwait, The Bank of Kuwait and The Middle East, Kuwait International Bank, Burgan Bank, Kuwait Finance House, Boubyan Bank	
아랍에미리트 (16)	아부다비 (11)	Abu Dhabi Commercial Bank, Abu Dhabi Islamic Bank, Bank Of Sharjah, Commercial Bank International, National Bank Of Abu Dhabi, National Bank of Fujairah, National Bank of Umm Al-Qaiwain, The National Bank of Ras Al-Khaimah, Sharjah Islamic Bank, United Arab Bank, Union National Bank
	두바이 (5)	Commercial Bank of Dubai, Dubai Islamic Bank, Emirates Islamic Bank, Emirates NBD, Mashreq Bank
바레인 (7)	Ahli United Bank, Bahrain Islamic Bank, Bank of Bahrain and Kuwait, National Bank of Bahrain, Al Salam Bank, The Bahraini Saudi Bank, Al Khaleej Commercial Bank	
오만 (6)	Bank Sohar, Ahli Bank, Bank Dhofar, Bank Muscat, National Bank of Oman, Oman International Bank	
카타르 (8)	Qatar National Bank, Qatar Islamic Bank, The Commercial Bank of Qatar, Doha Bank, Al Ahli Bank of Qatar, Qatar International Islamic Bank, Al Rayan Bank, Al Khaleej Commercial Bank	

주 : 괄호 안은 국가별 은행 개수임.

4) 총 58개의 GCC 은행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대상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은행 12개, 쿠웨이트 은행 9개, 아랍에미리트 은행 16개, 바레인 은행 7개, 오만 은행 6개, 카타르 은행 8개가 포함되어 있다.

자료: KAMCO Research.

가. 자산의 규모와 구성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붕괴, 전세계 주식 시장의 폭락, 대규모 외화 유출로 인해 GCC 국가 은행들은 자산규모의 성장세 둔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불량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각국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취하여 GCC 지역 은행은 타 지역 은행들에 비해 침체의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04~08년 연평균 28.2%의 성장세를 보여왔던 GCC 은행들의 자산규모는 2009년에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5.5%의 저조한 상승세를 보였다.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성장 둔화, 금융시장의 침체, 자금조달의 제한 등이 자산 상승률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9년 GCC 지역 은행들은 대부분 자산이 증가하였으나, 아랍에미리트의 토후국⁶⁾인 두바이는 일부 국영기업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은행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은행 전체 자산이 감소하였다. 2009년 은행 자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카타르가 15.5%로 가장 높았고, 아랍에미리트는 아부다비가 13.9%를 기록하였음에도 두바이 사태의 영향으로 6.9%에 그쳤다. 한편, 오만은 GCC 6개국 중 가장 낮은 1.4%의 자산 증가율을 보였다.

〈표 4〉 GCC 국가별 은행산업 자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우디아라비아	168,190	194,844	220,833	276,467	340,037	352,381
쿠웨이트	66,598	78,324	101,450	137,718	149,801	153,470
아랍에미리트	63,696	94,505	151,603	241,987	283,734	303,311
바레인	16,598	23,296	32,155	37,782	40,271	41,446
오만	10,495	11,584	15,140	21,962	30,259	30,695
카타르	22,107	22,107	22,107	22,107	22,107	22,107
계	347,684	432,632	565,359	785,121	939,224	990,753

자료: KAMCO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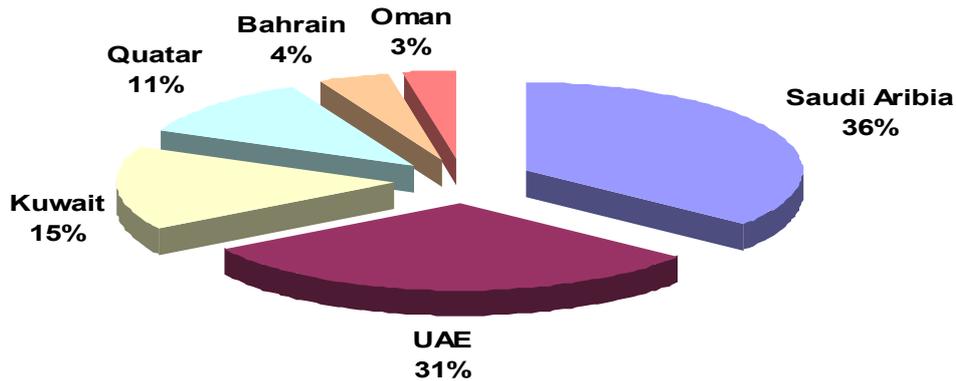
5) GCC 국가들은 금융위기 직후 자국 내 금융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등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였음.

- 쿠웨이트: 금리인하, 예금자보호조치 도입 등 금융시장 보호에 적극적
- 사우디아라비아: 유동성 공급 및 금리인하에 주력
- 아랍에미리트: 금융권에 대규모 긴급자금 투입
- 카타르: 카타르 투자청의 시중은행의 구제금융 기능 확대
- 바레인: 적극적인 정책금리 인하로 안정적 유동성 유지
- 오만: 중앙은행이 금융손실에 적극 대응

6) 아랍에미리트는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샤르자(Sharjah), 아지만(Ajman), 움알카이와인(Umm al-Qaiwain), 라스알카이마(Ras al-Kahimah), 푸자이라(Fujairah)의 7개 아랍 토후국으로 구성된 나라로 수도는 아부다비임.

2009년을 기준으로 GCC 6개국의 국별 은행자산 비중은 사우디아라비아가 35.6%로 가장 높고,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가 각각 30.6%와 15.5%를 차지하였다. 바레인과 오만의 은행자산 비중은 각각 4.2%, 3.1%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1> GCC 은행 자산의 국가별 비중 (2009년 말 기준)



자료: KAMCO Research.

GCC 은행산업의 전체 자본은 2004년부터 연평균 29% 증가하여 2008년에는 1,15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자산 가격 급락으로 인하여 불량 자산이 증가하면서 GCC 은행들도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평가손을 인식하고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해야 했으며, 이로 인하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수익성 감소는 자본 규모에 직접적 영향을 주어 2009년 GCC 은행의 총자본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1,299억 달러를 기록하여 예년보다 현저하게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표 5> GCC 국가별 은행산업 자본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우디아라비아	18,437	25,185	30,856	36,118	46,007	50,073
쿠웨이트	8,326	10,765	12,793	17,973	15,703	17,609
아랍에미리트	8,093	12,870	18,667	26,745	30,379	36,064
바레인	2,240	2,874	3,449	5,030	4,510	4,818
오만	1,294	1,772	1,960	3,280	3,907	3,998
카타르	3,772	5,723	7,631	11,515	14,647	17,353
계	42,161	59,189	75,356	100,662	115,154	129,916

자료: KAMCO Research.

2009년 GCC 모든 국가들의 은행자본은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아랍에미리트는 정부의 은행자본 구조조정 조치와 자국 은행 앞 500억 달러의 자본 공여로 인하여 GCC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18.7%의 자본 증가율을 보이며 361억 달러의 자본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카타르가 18.5%의 자본 증가율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반면 오만은 동기간에 2.3%의 가장 낮은 자본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09년 말 기준 사우디아라비아는 GCC 은행 전체 자본의 38.5%를 구성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가 각각 27.8%, 13.6%를 구성하고 있다. 오만은 3.1%를 차지하여 GCC 국가 중 가장 작은 자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GCC 지역의 대출시장도 크게 침체되어 2009년 말 기준 전체 대출 규모는 6,2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의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카타르와 오만이 각각 9.8%, 5.9%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가장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GCC 지역의 대출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2,043억 달러로 2008년 대비 0.4% 하락하였다.

2007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은행산업은 GCC 국가 중 최대 규모의 대출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최근 아랍에미리트 은행들의 대출 확장으로 2008년부터 아랍에미리트가 GCC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의 대출 금액을 보유하게 되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는 GCC 은행 대출의 34.0%를,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각각 32.6%, 15.9%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GCC 국가별 은행산업 대출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우디아라비아	90,524	116,780	129,350	156,963	205,257	204,345
쿠웨이트	36,857	45,565	59,588	80,695	94,993	99,415
아랍에미리트	43,523	61,335	102,531	156,135	205,631	213,327
바레인	7,334	10,658	14,807	19,850	22,857	22,817
오만	7,300	7,875	9,750	14,013	20,212	21,406
카타르	12,926	17,441	25,942	39,517	59,558	65,396
계	198,463	259,655	341,969	467,173	608,508	626,706

자료: KAMCO Research.

경제 호황 및 유가 상승, 높은 수익률로 인하여 GCC 은행의 고객예탁금 규모는 2004~08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GCC 고객예탁금은 2004년부터 5년간 연평균 26% 늘어나 2008년에는 6,00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고객예탁금 상승세가 둔화된 2009년에는 6.7% 상승한 6,410억 달러에 그쳤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12.1%, 9.1%의 높은 고객예탁금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쿠웨이트와 바레인은 각각 2%와 0.8%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은행의 고객예탁금은 GCC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가 각각 30.4%, 14.3%를 기록하고 있다.

〈표 7〉 GCC 국가별 은행산업 고객예탁금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우디아라비아	126,615	142,059	164,438	199,403	245,676	261,019
쿠웨이트	40,682	50,125	60,769	79,281	89,624	91,457
아랍에미리트	46,044	65,124	96,676	147,920	178,956	195,155
바레인	9,091	12,048	15,209	17,781	21,678	21,848
오만	6,952	7,952	10,106	13,345	18,392	19,370
카타르	14,007	18,929	25,831	37,302	46,496	52,129
계	241,390	296,238	373,029	495,033	600,822	640,977

자료: KAMCO Research.

나. 수익성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세계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 확대와 비관적 경제 전망으로 인하여 대출을 축소하였고, 세계적인 유동성 부족 현상이 지속되어 수익성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금융위기로 인한 상황 악화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GCC 지역의 은행산업도 타국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현격한 수익성 악화를 경험하였으나, 다른 지역 금융기관에 비해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GCC 6개 국가의 은행산업 전체의 순이익은 2008년 16.5% 감소한 데 이어 2009년에도 7.9% 감소하였다. 2009년 기준으로 GCC 전체 은행 순이익의 46%를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은행산업 순이익이 전년 대비 0.3% 감소하는 데 그쳤으나,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은 각각 25.3%, 35.4%나 감소하며 수익률 악화가 지속되었다.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에 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70.1%나 감소하였던 쿠웨이트 은행산업은 2009년에 순이익이 14.9% 증가하며 GCC 국가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2008년 21.6%, 9.2%로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했던 오만과 카타르는 2009년 0.2%, 16.7%의 순이익 감소율을 보였다.

<표 8>

GCC 국가별 은행산업 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우디아라비아	4,491	7,171	9,426	8,057	7,021	7,001
쿠웨이트	1,619	2,223	2,799	3,614	1,081	1,242
아랍에미리트	1,308	3,046	3,478	4,647	4,526	3,380
바레인	264	360	500	680	604	390
오만	172	283	366	466	509	424
카타르	552	1,159	1,473	2,232	2,716	2,710
계	8,406	14,242	18,042	19,696	16,456	15,148

자료: KAMCO Research.

2009년에는 경기 회복과 유가 상승으로 GCC 지역 은행산업의 순이자수입은 27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다. 반면 펀드 수수료, 자문료 등의 수수료 수입은 주식시장 침체 및 IPO,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 감소 등으로 69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0.7% 감소하였고 투자 수입도 9.1% 감소하였다. 외환 관련 수입 및 기타 영업 수입은 전년 대비 40.2% 증가한 32억 달러를 기록하여, 총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40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9>

GCC 은행산업 총영업수익 구성 내용

단위: 백만 달러

	2008	2009	증가율
순이자수익	24,552	27,615	12.5%
수수료수익	7,674	6,852	-10.7%
총투자수익	2,663	2,422	-9.1%
외환 및 기타 영업수익	2,280	3,198	40.2%
총영업수익	37,170	40,088	7.8%

자료: KAMCO Research.

2009년 GCC 지역 은행의 비이자수익은 수수료 수입 감소와 자회사 및 합작회사의 이익 감소로 2008년 대비 1.2% 감소한 12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투자시장 위축으로 세계 금융기관은 보유 투자자산에 대규모 위험 및 손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GCC 지역 은행 역시 금융위기와 투자시장 위축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금융위기 영향이 집중되었던 2008년에는 4분기 동안 23백만 달러의 투자 손실을 기록하여, 2008년 순투자수익은 2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46.2% 감소하였고 2009년에도 24백만 달러로서 전년 대비 9.1%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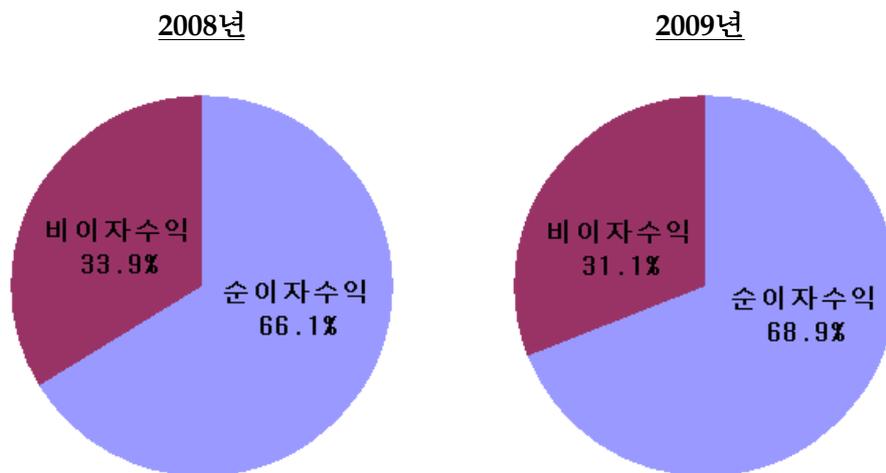
GCC 지역 은행의 2009년 총영업수익은 401억 달러로 2008년 372억 달러 대비

7.8% 증가하였다. 이는 2009년에 순이자수익과 외환 및 기타 영업수익이 2008년 대비 각각 12.5%와 40.2%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총영업수익에서 순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6.1%에서 2009년 66.9%로 상승하였다.

수수료수익은 2009년에 69억 달러로 2008년 대비 10.7%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비이자수익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수수료수익의 비이자수익에 대한 비중은 2008년 60.8%에서 2009년 54.9%로 다소 하락하였으며, 총영업수익에 대한 비중 역시 2008년 20.6%에서 2009년 17.1%로 하락하였다.

2009년 비이자수익의 총영업수익에 대한 비중은 31.1%로 2008년 33.9%에서 1.2% 포인트 하락하였다. 총영업수익은 2008년 대비 7.8% 증가하였으나, 영업비용 역시 관리비 및 인건비의 증가로 139억 달러를 기록하여 총당금적립전이익은 2008년 대비 4.9% 증가하였다.

<그림 2> GCC 은행산업 총영업수익 구성비



자료: KAMCO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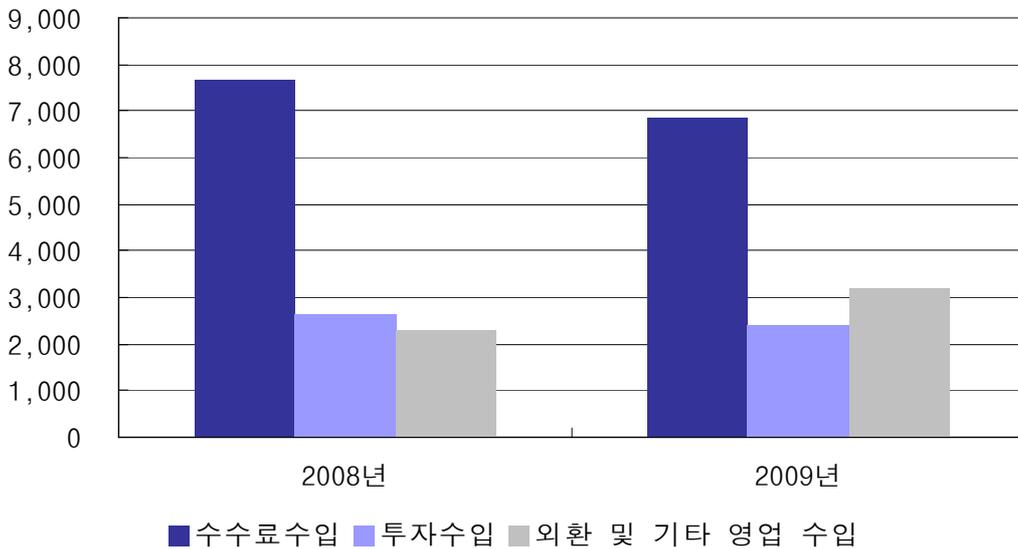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신용조건이 악화되면서 GCC 지역 은행 역시 투자자산에 대규모 손실을 인식하고 위험 자산에 대한 대규모 총당금을 적립해야 했다. 2009년 GCC 지역 은행의 총당금 적립 규모는 109억 달러로 2008년 71억 달러 대비 53% 증가하였다.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3분기까지 집중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GCC 지역 은행은 동기간에 68억 달러를 적립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총당금 적립금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2009년 GCC 지역 은행의 수익성 지표는 금융위기 및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크게 악화되었다. 2009년 총자산수익률(Return on Average Assets: ROAA)과 자기자본 수익률(Return on Average Equity: ROAE)은 각각 1.57%와 12.36%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직전 5개년 평균치인 2.9%와 22.5%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수익성 지표의 악화는 금융위기로 인한 자산 부실화와 대규모 충당금 적립 및 손실 인식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다.

<그림 3>

GCC 은행산업 비이자수입 구성 내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KAMCO Research.

다. 건전성 지표

금융위기와 과도한 대출 확대로 신용부도 위험이 증가하여 2008년 말 기준 무수익여신(Non-Performing Loan: NPL)은 141억 달러로 2007년 대비 54.5%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264억 달러로 2008년 대비 86.7% 증가하였다. 국별로는 쿠웨이트가 105억 달러로 GCC 국가 중 가장 많은 무수익여신(40%)을 보유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26%와 24%를 차지하고 있다. 무수익여신의 증가와 신용부도 위험의 증가로 인하여 2008~09년 GCC 은행들은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해야 했다.

<표 10>

GCC 국가별 여신 구성

단위: 백만 달러

연도	국가	수익여신	무수익여신	총여신	총당금	순여신
2009	사우디아라비아	203,646	6,871	210,517	6,172	204,345
	쿠웨이트	96,106	10,454	106,560	7,145	99,415
	아랍에미리트	212,732	6,443	219,175	5,847	213,327
	바레인	22,788	701	23,489	672	22,817
	오만	21,400	1,023	22,423	1,017	21,406
	카타르	65,383	885	66,268	872	65,396
	GCC	622,054	26,377	648,431	21,725	626,706
2008	사우디아라비아	206,859	2,800	209,659	4,402	205,257
	쿠웨이트	94,355	5,813	100,168	5,175	94,993
	아랍에미리트	205,615	3,577	209,192	3,561	205,631
	바레인	22,838	669	23,507	649	22,857
	오만	20,373	661	21,033	821	20,212
	카타르	59,489	607	60,096	539	59,558
	GCC	609,529	14,127	623,655	15,558	608,508

자료: KAMCO Research.

오만과 카타르의 은행은 총당금 적립비율⁷⁾이 각각 99.4%, 98.5%로 가장 높았다. 쿠웨이트는 2007년 총당금 적립비율이 124%에 달했으나, 무수익여신이 대폭 증가하여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89.0%와 68.3%를 기록하였다. 2009년 GCC 은행산업 무수익여신비율⁸⁾은 4.1%로 2008년 2.3%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총당금 적립비율 등을 고려할 때 GCC 은행산업 무수익여신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GCC 국가별 자산 건전성 지표

연도	국가	총당금/총대출	무수익여신비율	총당금 적립비율
2009	사우디아라비아	2.9%	3.3%	89.8%
	쿠웨이트	6.7%	9.8%	68.3%
	아랍에미리트	2.7%	2.9%	90.8%
	바레인	2.9%	3.0%	95.9%
	오만	4.5%	4.6%	99.4%
	카타르	1.3%	1.3%	98.5%
	GCC	3.4%	4.1%	82.4%
2008	사우디아라비아	2.1%	1.3%	157.2%
	쿠웨이트	5.2%	5.8%	89.0%
	아랍에미리트	1.7%	1.7%	99.6%
	바레인	2.8%	2.8%	97.1%
	오만	3.9%	3.1%	124.3%
	카타르	0.9%	1.0%	88.8%
	GCC	2.4%	2.3%	107.2%

자료: KAMCO Research.

7) 총당금/무수익여신

8) 무수익여신/총여신

III. GCC 경제와 은행산업 전망

1. GCC 경제 전망

2008년 6,00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어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1분기까지 전세계에서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증시는 폭락을 거듭하였다. 각국 정부는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자국과 전세계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는 점차 안정되고 있으며, 2009년에 1.1%를 기록했던 전세계 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4.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⁹⁾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낮추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으로 2010년에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불확실성과 위험이 잔존해 있다.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자산 가치의 하락, 높은 실업률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여 경기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도 급격히 하락하여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은 GCC 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GCC 지역은 전세계 원유 매장량의 45%를 보유하고 있으며, OPEC 원유 매장량의 52.1% 및 생산량의 49.5%를 차지할 정도로 전세계 석유산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이다. GCC 각국의 석유산업 의존도 역시 높은 편으로서 석유산업은 GCC 총수출의 73%, 재정수입의 41%, GDP의 41%를 차지하고 있다.¹⁰⁾

2002년부터 지속된 고유가 및 경제호황에 힘입어 2008년 GCC 지역의 경제 규모는 1조 500억 달러로 2005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08년 7월 국제유가는 배럴 당 148달러로 전년 동기의 2배 수준으로 상승하여 GCC 경제규모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고유가 기조를 반영하여 IMF는 GCC 지역의 2008년 경제성장률을 8.2%로 예상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에 집중된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 말 국제유가가 배럴 당 35달러로 곤두박질치면서 GCC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6.4%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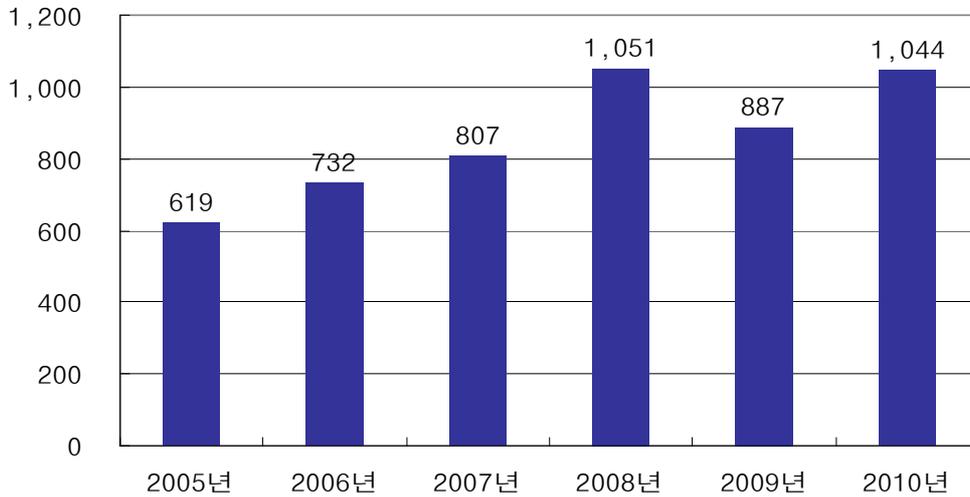
9)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10

10) 석유산업의 GDP 기여도('07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55%), 쿠웨이트(52%), 카타르(35%), 오만(25%), UAE(23%), 바레인(15%)

<그림 4>

연도별 GCC의 명목 GDP 추이

단위: 10억 달러



자료: IMF.

국가별로는 GCC 6개국 중 쿠웨이트가 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2009년 경제성장률이 -1.6%를 기록하였고, 경제 규모가 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도 각각 -0.9%와 -0.2%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다. GCC 국가 중 경제규모 상위 3개국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제가 후퇴하였으나, 하위 3개국은 미약하나마 소폭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카타르는 GCC 국가 중 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아 2009년에 1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오만과 바레인 역시 각각 4.1%와 3.0%의 소폭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GCC 전체의 명목 GDP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 8,870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8년 대비 15.6%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1조 400억 달러로 2008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또한 2009년에 둔화되어 0.7%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5.2%로서 2008년 6.4%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고성장 기조를 유지해왔던 카타르가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와 빠른 경제 회복의 결과, 2010년에 18.5%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2008년의 16.4%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도 2010년 경제성장률이 4.0%로서 2008년 4.4%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바이 사태를 경험했던 아랍에미리트와 2009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쿠웨이트 또한 2010년 각각 2.4%와 3.2%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며, 바레인도 3.7%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어 2010년에는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오만은 2010년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GCC 국가 중 유일하게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할 전망이다.

〈표 12〉 GCC 국가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사우디아라비아	5.6	3.2	3.3	4.4	-0.9	4.0
쿠웨이트	10.6	5.1	2.5	6.3	-1.6	3.2
아랍에미리트	8.2	9.4	6.3	7.4	-0.2	2.4
바레인	9.2	15.0	15.3	16.4	11.5	18.5
오만	4.9	6.0	7.7	7.8	4.1	3.8
카타르	7.9	6.7	8.1	6.1	3.0	3.7
계	6.9	5.5	5.0	6.4	0.7	5.2

자료: IMF.

GCC 국가의 재정수지 흑자규모는 고유가와경제호황으로 2007년 GDP의 17.6%에서 2008년 27.4%로 확대되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원유 수요가 감소하면서 2009년 흑자규모가 GDP의 5.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국가별로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2008년 GDP의 33.0%에서 2009년 1.2%로 가장 큰 폭으로 축소되었으며, 두바이 사태를 겪은 아랍에미리트도 2008년 GDP의 21.7%에서 2009년 4.0%로 대폭 감소하였다. 대부분의 GCC 국가가 금융위기 이후 큰 폭의 재정수지 흑자규모 감소를 경험하였으나, 2010년에는 유가 상승으로 흑자규모가 GDP의 10.4%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CC 각국 정부는 금융위기 발생 직후 유동성 공급 및 금리 인하 등으로 대응하였으며, 경기 부양을 위하여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등 내수 활성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 속도로 인해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유가 상승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로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할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표 13〉 GCC 국가별 재정수지 추이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f
사우디아라비아	18.4	21.0	12.3	33.0	1.2	6.7
쿠웨이트	42.9	35.4	40.2	26.9	24.4	24.4
아랍에미리트	20.0	28.4	25.2	21.7	4.0	12.7
바레인	9.7	9.1	12.8	12.2	9.0	13.0
오만	12.1	13.8	11.2	22.6	4.1	8.3
카타르	7.6	4.7	3.2	8.0	-4.7	-0.7
계	20.6	22.4	17.6	27.4	5.3	10.4

자료: IMF.

2. GCC 은행산업 전망

GCC 은행산업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둔화, 주식시장 하락 및 신용시장 경색 등 부정적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지만, 각국의 신속한 통화정책의 결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0~11년 GCC 은행산업은 부동산, 투자시장 등의 외부 산업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GCC 은행의 보유 자산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과 투자시장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하게 되면 은행 자산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각각 109억 달러와 264억 달러를 기록하였던 총당금과 무수익여신은 2010년 각각 88억 달러와 28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GCC 은행들은 대규모 총당금 적립 기조를 벗어나 2010~11년에는 2008~09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총당금을 적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수익여신비율은 2010~11년에 4.5%를 기록하여 2009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당금적립비율은 2009년 82%에서 2010년 89.9%, 2011년 101.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0.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GCC 지역은 2010년 5.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고유가로 인하여 6.4%를 기록했던 2008년 수준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GCC 지역의 경기 회복은 은행산업의 수익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총당금적립전이이익이 2010년과 2011년 각각 261억 달러와 263억 달러로 2009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11년 총당금 적립금액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2010년과 2011년 GCC 지역 은행 순이익은 13.3%와 15.8% 증가한 172억 달러와 199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표 14>

GCC 국가별 은행산업 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9	2010 ^f	2011 ^f
이자수익	43,083	43,238	44,896
이자비용	(15,468)	(16,595)	(18,666)
순이자수익	27,615	26,642	26,230
수수료수익	6,852	7,191	7,479
투자수익	2,422	3,143	3,357
외환 및 기타영업수익	3,198	3,226	3,340
비이자수익	12,473	13,561	14,176
총영업수익	40,088	40,203	40,406
총영업비용	(13,888)	(14,071)	(14,142)
총당금적립 전 이익	26,120	26,132	26,264
총당금적립 등	(10,881)	(8,705)	(6,093)
기타 비영업비용	(171)	(260)	(286)
순이익	15,148	17,167	19,884

자료: KAMCO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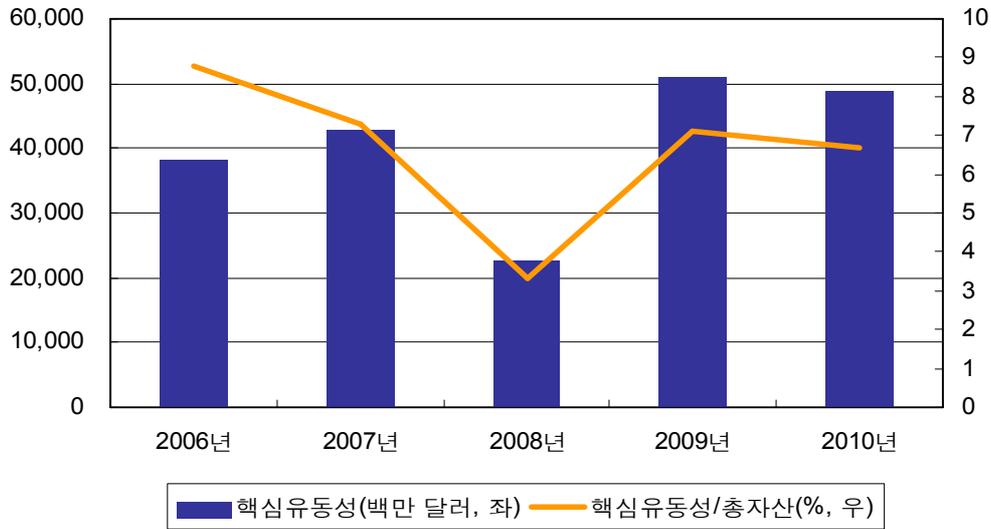
GCC 지역 은행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자산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총대출 규모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2010년 총대출금액은 유가 하락, 글로벌 신용경색, 부동산 및 투자 시장 위축, 주식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2009년 대비 1.6% 증가한 6,359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GCC 은행산업은 2010년과 2011년에도 총자산이 각각 전년 대비 3.1%와 5.8% 증가하면서 지역 내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2011년에는 1조 4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GCC 지역 은행 앞 유동성 공급 및 금리인하 조치 등으로 자국 금융시장 보호에 적극 대처한 결과, 2010년 GCC 지역 은행의 핵심유동성(Core Liquidity)¹¹⁾은 48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8년 228억 달러 대비 114% 증가한 것이며, 총자산 대비 핵심유동성비율도 2008년 3.3%에서 2010년 6.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GCC는 각국 금융 당국의 강력한 지원 정책으로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것으로 기대되나, 높은 조달 비용, 낮은 수익성, 위험 기피로 인해 대출시장의 부진이 예상되고, 대규모 총당금 적립 및 투자 손실로 GCC 은행산업은 금융위기 이전의 호황기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1) 현금과 단기금융상품의 합계에서 은행간 차입금을 제외한 금액

〈그림 5〉 연도별 GCC 유동성 추이



자료: Standard & Poor's.

Standard & Poor's는 GCC 지역 은행산업에 대한 리스크 평가등급(Banking Industry Country Risk Assesements: BICRAs)¹²⁾을 3~5등급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은행산업이 가장 높은 3등급으로 평가되었다. Standard & Poor's는 2010년에 쿠웨이트 일부 은행의 등급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은행 중 일부에 대해서도 빠른 회복력을 고려하여 등급을 상향시켰다. 그러나 일부 두바이 은행에 대해서는 두바이월드 및 자회사 관련 위험 증가 로 등급을 하향 조정하였다.

〈표 15〉 S&P의 GCC 국가 및 은행산업 신용등급

단위: %

	국가 등급	BICRAs
사우디아라비아	AA-/Stable	3
쿠웨이트	AA-/Stabl	5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 AA/Stable	4 -
바레인	A/Stable	5
오만	A/Stable	5
카타르	AA/Stable	5

자료: Standard & Poor's.

12) 해당 국가의 금융시스템의 정상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그룹 1부터 10까지 분류되며, 그룹 1의 정상도가 가장 높음.

IV. GCC 은행산업의 위험 요소 및 과제

금융위기 이후 GCC 각국은 풍부한 오일머니와 각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 조치로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낙폭이 비교적 크지 않았으며, 유가 상승으로 경기 회복 또한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기 회복에 따라 은행산업 역시 빠르게 복구되고 있으나, 아직도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이 상존해 있다. 금융위기 이후 폭락했던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국제 경제 여건에 따라 변동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향후 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투자 손실을 인식할 가능성 또한 크다. 2008년 4분기 이후 가속화되었던 총당금의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신용시장 경색으로 인하여 신용부도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GCC 은행들은 향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총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젤 II 협약¹³⁾에 따라 자본 재조정을 통하여 자본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며, 신용부도 위험 증가에 따라 만기 도래하는 단기 대출 및 장기 대출에 대한 채무재조정에 대한 위험도 상존해 있다. 무엇보다도 GCC 지역의 경제 회복 여부, 경기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국제 유가 동향이 GCC 은행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비관적 전망은 GCC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GCC 주식시장은 건설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지면서 GCC 최대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증시가 3개월 만에 50% 이상 폭락하는 등 급격히 위축되었다. 두바이 역시 투기성 외국자본이 이탈하면서 50% 이상 하락하는 등 GCC 지역 증시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증시가 5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기가 이렇게 급속도로 GCC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 요인은 은행 활동의 국제화와 자본 자유화 등에 기인한다. GCC 은행산업은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은행 구조조정 등 전반적인 금융개혁과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제화된 은행 활동을 위한 법 개정 이외에도 GCC 개별 은행들이 변화된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역내 은행과의 합병이나 국제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규모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화된 환경으로 인하여 은행활동의 위험은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13) 기존 협약(바젤1)을 보완해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규모 산출에 있어서 통일된 국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은행 내부 전산시스템의 오류, 직원들의 부정행위, 예상하지 못한 외부 사고 등으로 인한 금융손실을 반영하는 운영리스크에 대한 자본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위험을 극복하고 은행산업 내에서 현재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행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화로 인하여 선진 은행 시스템 및 전자 기법 등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고,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금융 개혁, 은행 위험 관리 활동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은행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인력과 선진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은행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한 지배구조가 요구된다. 건전한 지배구조는 어떤 산업에서든 기업을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GCC 은행산업에서도 증가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필요조건 중 하나이다.

넷째, 다양한 기법 및 만기 구조, 유통시장 발달,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 등 금융시장이 다양하게 발달되어야 한다. 이는 GCC 은행산업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어 금융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다섯째, 국영은행 중심의 은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GCC 국가들은 다른 중동 국가와 마찬가지로 은행산업에서 국영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국영 은행 위주의 은행산업 구조에서 탈피하고 민간 은행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금융시장이 더욱 다양해지고 은행산업이 더욱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정부의 관리·감독이 은행산업을 전반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나친 시장위주의 정책으로 태동, 확산된 점을 교훈으로 삼아, 정부에 의한 통제가 아닌 관리·감독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된다면 GCC 은행산업의 기반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수년간 지속된 경제 호황기에 고유가로 인한 풍부한 오일 머니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투자 등으로 인한 FDI 유입으로 GCC 은행산업은 급속히 성장하였다. 또한 세계적 금융위기 하에서도 각국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여 GCC 은행산업은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화, 전문화된 은행 환경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은행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GCC 은행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 한국수출입은행,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중동 GCC 국가의 대응경과 및 시사점, 2008. 12
- _____, GCC 국가의 2009년 경제동향 및 2010년 전망, 2010. 2
- _____, GCC 국가의 은행산업 현황 및 전망, 2010. 5
- IMF, *The GCC Banking Sector: Topography and Analysis*, April 2010
- KAMCO RESEARCH, *GCC Banking Sector*, Aug. 2010
- _____, *Qatar Bank Industry Risk Analysis*, April 2008.
- Moody's, *Arab Banks Report*, June 2010.
- _____, *Saudi Arabia Banking System Outlook*, Sep. 2009.
- _____, *United Arab Emirates Banking System Outlook*, Jan. 2009.
- _____, *Oman Banking System Outlook*, Aug. 2009.
- _____, *Bahrain Banking System Outlook*, Aug. 2009.
- The Banker, *Gulf banks still on top despite difficult year*, July 2010.
- _____, *Arab banks shurug off global pressures*, Sep. 2010.
- Standard & Poors, *Gulf Banks Are Weathering The Storm But Still Face Tight Liquidity*, Sep. 2010.
- www.eiu.com
- www.imf.org
- www.thebanker.com